

무주군, 하반기 공로 연수식

김상선 설천면장·황복숙 위생관리팀장·한진석 지역재생팀장 등

무주군은 지난 24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8년도 하반기 공무원 공로연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상선 설천면장과 황복숙 위생관리팀장, 한진석 지역재생팀장, 김현욱 안성면 공진보건진료소장을 비롯한 무주군 공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공로패 수여와 꽃다발 증정 등 공로연수식과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30여 년 이상 해 아릴 수 없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시고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께 군민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직원들을 대신해 존경한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무주를 위해 노력해주셨던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7백여 공직자들 다함께 노력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선 설천면장은 답사를 통해 "고향 무주와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지난 시간들이 이 순간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무주를 향해, 그리고 군민과 동료여러분을 향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1월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김상선 설천면장(36년 11월)은 그동안 내무부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과, 기획(감사, 조정)실, 종합민원실(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문화관광홍보팀으로서 대내외에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의 역사를 새기고 태권도성지 무주의 명성을 각인시킨 인물로 꼽힌다.

36년 5개월 간 보건의료위생 분야를 지켜온 황복숙 위생관리팀장은 1982년 7월 안성면 근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등에서 일하며 군민건강증진의 대오이자 무주군 안전먹거리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으로 칭송을 받아왔다.

한진석 지역재생팀장(33년 5월)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산업경제과, 태권도공원과, 건강휴양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등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태권도원 조성, 대민행정을 주도하는 등 무주발전에 기여했으며 36년 5개월 간 보건소와 진료소 등에서 건강한 무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온 김현욱 안성면 공진보건진료소장을 주민들 제일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며 삶의 애환까지 아우르는 모습으로 귀감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사랑나눔바자회 운영 수익금 2,524만6,980원을 전달했다.

‘함께하는 주민복지’ 온정 잇따라

무주사랑일조회 150만원·반딧불김치 100박스 사랑나눔바자회 운영 수익금 2,500여만원 등 전달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무주군민들의 온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 무주사랑일조회(회장 김기복)에서는 15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무주군에 기탁해왔으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용식)에서는 무주군 사랑나눔바자회 운영 수익금 2,524만6,980원을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반딧불김치 임경택 회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 마음이 흐뭇하다"라며 "지역농산물 이용과 지역사람 채용 등으로도 무주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오용식 회장은

“정말 많은 분들의 뜻과 노력, 정성이 배어있는 성금을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사랑나눔바자회에 보내 주셨던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따뜻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사랑일조회 김기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함께 하는 이웃이 있어 살만하다는 생각들 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저소득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며 김치는 각 읍면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월랑공원 노천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거듭

군상리 340번지 일원 21억원 들여 조성 마구조 설치·휴게실 등 편의공간 마련

진안군은 지난 24일 우천과 흑서기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국비 6억원, 군비 15억원 등 총 21억원을 들여 월랑공원 다목적구장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안읍 군상리 340번지 일원에 위

치한 월랑공원 노천 테니스장은 그동안 노천구장으로 편의시설까지 부족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면적 3,600㎡의 전천후다목적구장으로 탈바꿈했다. 마구조 설치와 함께 휴게실과 화장실 등 편의공간도 함께 마련되

었다. 월랑공원 다목적구장은 낯설고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 여가 활동이나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에 많이 활용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로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우수기관 선정

도내 유일 최고 A등급

진안군은 2018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222개소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대상

으로 서비스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안전관리 및 아이돌보미의 직무 만족도, 체계적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 진행했다.

진안군은 전년 대비 서비스 실적이 이용가정의 경우 40%, 이용건수는 48%가 증가되고,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게 평가 받았다.

아이돌봄사업 운영 내실화는 물론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게 된 것.

이항로 군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계남면, 전광판 이용 빠른 알림 서비스 제공

장수군 계남면사무소(면장 김연식)는 면청사 입구에 주민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전광판은 17년 만에 고정식 전광판에서 칼라LED 전광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각 종 지역 소식과 알림 사항을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김연식 면장은 “면민이 행복한 계남면이 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빠른 소식과 밝은 면청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미령면, 내년부터 문해교육 운영

진안군 미령면(면장 이승호)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인성 성인 문해반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미령면은 교육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검정고시 없이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전라북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의 문해교육 학습시설,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정여부 검증 거쳐 성인문해반 교육 1단계(1~2학년)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그간 미령면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한글 문해반을 운영하며, 한글 기초부터 간단한 셈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아 수강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성인문해교육을 수료하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운영은 3월부터이며, 학습 인원은 1단계(1~2학년)는 15명 기준으로 매주 2회(4시간) 실시한다.

이승호 면장은 “그 옛날 어르신들의 사정으로 안타깝게 배우지 못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배움을 향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